opusdei.org

사제의 해에 32명의 새 사제 탄생

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는 14개국출신의 32명의 새사제 들의 서품식을 주례 하였다.

2010-5-23

사제 서품식 강론중 단장 주교는 하느님의 자비가 사제들의 손에 남겨진 다고 하며 그 손으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게 만든다 고 연설하였다. 사제의 손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주고 병자들을 성유로 바르고 위로와 치유를 준다고 하며 교회안에서의 사도직을 행하는 형제들을 강복하고 필요한 교우들을 도와조건 없는 봉사를 하는것이다고 강론하였다.

새 사제들에게는 "이제 사제가 되는 여러분들은 기도생활과 희생으로 주 님과 가까히 지내셔야 합니다. 항상 사제 직무안에서의 의무를 사랑으로 지켜 주십시오. 그리스도님과 성사를 집전할때 뿐만아니라 24시간 가까히 지내십시오. 성모님과 성요셉에대한 신심을 키우고 우리 아버지 성인이신 성 호세마리아의 모범을 배우십시 오". 라고 말 하였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
sajeyi-haee-32myeongyi-sae-sajetansaeng/ (2025-12-19)